

## 『三國遺事』 記錄의 信憑性 問題

Reliability of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amguk-yusa)

---

저자 (Authors)	李基白 Lee Ki-baik
출처 (Source)	<a href="#">아시아문화</a> ,(2), 1987.1, 97-102(6 pages) <a href="#">Asian Culture</a> ,(2), 1987.1, 97-102(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a>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8569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85690</a>
APA Style	李基白 (1987). 『三國遺事』 記錄의 信憑性 問題. 아시아문화(2), 97-1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02 09:4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三國遺事』記錄의 信憑性 問題

李 基 白\*

## I. 從來의 諸說과 그 문제점

『三國遺事』 기록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된 바가 있다. 가령 『新增東國輿地勝覽』(6 京畿)을 보면 『遺事』에 언급하여,

그 기재한 바는 모두 허황(荒誕不經)한 것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고 하였고, 또 李圭景도 『五洲衍文長箋散稿』(50 史籍類)에서 한 마디로,

그 說은 허황(荒誕)하다.

고 하였다.

『遺事』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것은 安鼎福의 『東史綱目』인데, 그 凡例 中 典據書目을 열거하는 속에 『三國遺事』를 적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본래 佛氏가 教를 세운 源流를 적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고로 간혹 年代를 참고할 만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로지 異端의 허황(虛誕)한 說이다. 뒤에 本朝에서 『通鑑』을 편찬할 때에 많이 取錄하였고, 또 『輿地勝覽』의 地名도 역시 많이 이에 따랐다. 아아, 이 책은 오직 異流의 怪說인데, 능히 후세에 전하여졌다. 당시에 어찌 붓을 쥐고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없었겠는가마는, 모두 없어지고 전함이 없다. 대개 이 책은 僧侶들의 전하는 바가 되어서 岩穴 속에 감추어져 兵火의 뒤에도 보전할 수가 있었는데, 훗날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 있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니, 東國 文獻의 소멸이 이같은데 이르렀는가. 슬프다.

즉 安鼎福 역시 『遺事』가 異端의 허황한 說이요, 異流의 怪說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儒學者들에 의해서 허황한 이야기로 치부되어 오던 『遺事』는 日本學者들에 의해서도 또한 가혹한 평가를 받아왔다. 가령 今西龍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遺事』는 佛敎 전설의 난숙기에 있어서 僧侶의 撰述에 의한 것이므로 해서, 佛敎에 관한

\* 翰林大學 史學科

기사가 과반을 점하고, 그 중에는 당시 高麗에서 행해지던 唐·宋 僧侶 撰述의 現應傳의 종류에서 취하여 이를 三國 佛教의 사적으로 한 것과 같은 說話를 그대로 採錄한 것이 있다. 史傳에 있어서도 심한 誤謬 杜撰이 적지 않고, 따라서 史學의 資料가 되기보다는 民譚의 資料로서 다루어져야 할 책이지만, 달리 文獻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서 당시에 전래해 온 史實의 砂金을 採取하지 않을 수 없다(『檀君考』, 『靑邱說叢』 1, 1929; 『朝鮮古史の研究』, 1937, pp. 4~5).

이같이 그는 『遺事』가 史學資料이기보다는 民譚 資料라고 하므로서, 그 기사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비록 그는,

社會的 記事는 『史記』보다도 本書에 많다. 그밖에 여러가지 귀중한 史料를 포함하여, 荒唐無稽한 說話 중에도 얻는 바가 적지 않다. 一語의 註, 一句의 辭에도 뜻밖의 事實을 包藏한 것이 있다. (『朝鮮史の栞』, 『史林』, 1916, 『朝鮮史の栞』, 1935, p. 17)

고 하면서도, 『檀君考』와 같은 구체적 연구에 있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崔南善은 『遺事』를 評議하여,

『三國遺事』의 病을 말하는 자—대개 그 所傳의 誕怪한 것을 擧하나, 우리로 보면 誕怪 그 점이 『三國遺事』의 생명이오, 우리가 그를 향하여 큰 힘을 입고 큰 감사를 드리는 所以인 것이다(『解題』, 『啓明』 18, 1927; 『新訂三國遺事』, 1941, p. 12)

고 하였고, 또 나아가서,

一言으로 蔽하고 古事를 原形대로 보고자 아니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三國遺事』의 고마움을 深感치 아니치 못할 것이요, 『三國遺事』를 덮어놓고 고마워하려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고마운 所以가 그 이른바 誕怪함에 있음을 切感치 아니치 못할 것(同上 p. 13)

이라고 하였다. 즉 古史의 原形을 보존해 준 것이라고 하여 『遺事』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같이 『遺事』의 기록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견해를 보면, 서로 엇갈리는 대목들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어떤 학자는 이 기록 내용의 신빙성에 대하여 논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그史料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엇갈리는 의견이 나타나게 된 것은 『遺事』가 史書로서 지니는 성격과도 관련되는 것이며, 먼저 그 점이 밝혀져야 문제를 풀 실마리가 붙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을 달리하여 그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II. 『遺事』各條目的 내용 구성

『遺事』는 모두 9篇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편은 王曆을 제외하면 모두 여러 조목의 독립된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예외인 王曆이라 하더라도 年表의 해당란에 기입된 기록을 다른 편 의 한 조목과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遺事』 기록의 신빙성 여부를 문제삼을 때에는, 바로 각 조목의 기록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각 조목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다른 文獻의 인용으로 되어 있다. 즉 『遺事』의 저자인 一然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여 주는 자료들을 여러 곳에서 두루 찾아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모아 놓은 것이다. 가령 紀異篇의 맨 처음에 나오는 古朝鮮 조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僉 ······  
古記云 昔有桓因 庶子桓雄 ······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 ······  
通典亦同此說 ······

즉 古朝鮮 조목은 네개 文獻의 인용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인용이 이 조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각 조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록들을 위하여 두루 상고한 文獻들 중에는 『三國史記』와 『海東高僧傳』을 위시해서, 중국의 여러 史書와 우리 나라의 각종 古記·鄉傳·寺蹟記·造像記·量田帳籍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一然은 이러한 여러 史料의 수집에 대단히 열성적이었으며, 또 그들 典據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三國史記』와 비교해 볼 때에 띄어 인상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遺事』의 모든 조목이 충실하게 그 전거를 밝히고 있는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遺事』를 구성하는 약 140 정도의 조목 중에서 약 50조목 가량이 그러한 전거를 밝히고 있을 뿐, 나머지 다른 약 90개의 조목에는 그러한 전거가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遺事』의 대부분 기록이 결국 『三國史記』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분량이 전거를 밝히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전거없이 一然에 의해서 자의로 서술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즉 전거를 적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는 전거가 있는 기록들이었다는 점만은 확실한 것이다.

그런 중에는 밝혀 놓지 않아도 독자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다. 避隱篇의 信忠掛冠 조목을 그대로 예로 들 수가 있다. 이 조목을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이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景德王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中略)  
又別記云 景德王代 有直長李俊(中略) 改創槽淵小寺爲大刹 名斷俗寺 身亦削髮 法名孔宏長老  
住寺二十年乃卒 與前三國史所載不同 兩存之闕疑

여기서 「前三國史」를 金富軾의 『三國史記』 이전에 편찬된 『舊三國史』로 보고, 이 부분을 「『前三國史』에 기록된 바와 같지 않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이미 우리 나라의 여러 번역이 그러한 것과 같이, 「앞의 三國史에 기록된 바와 같지 않다」로 읽어야 한다. 즉 信忠掛冠 조목은 『三國史記』의 기록과 『別記』의 기록과 둘을 인용해 놓은 것인데 『三國史記』에서 인용한 부분에는 그 사실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왜 생략했는지는 물론 말이 없으므로 딱히 알 수가 없으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했다고 봐서 좋지는 않을가 싶다. 그리고 『三國史記』의 기록과 『別記』의 기록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둘을 다 적어서 의심을 덜고자 한다고 一然 자신의 의견을 적고 있는 것이다. 이 『三國史記』 인용 부분은 『三國史記』 권9 景德王 22年 8월조에서 찾을 수가 있다. 다만 一然이 『三國史記』의 기록을 잘못 읽어서 信忠이 入山한 것처럼 적어 놓았으나, 실제로는 그가 이 때에 上大等으로부터 파면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이같이 『遺事』는 다른 文獻으로부터의 인용이 주가 되어 있지만, 군데군데에 필요에 따라서 저자인 一然의 의견도 기입하여 놓았다. 가령 앞에서 예시한 古朝鮮 조목에 있어서는 一然의 의견이 모두 挾註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挾註가 아닌 本文으로 기록된 부분들도 있는데, 예컨대 앞에서 이용한 信忠掛冠 조목에서 「與前三國史所載不同 兩存之闕疑」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같이 一然의 의견은 대체로 인용된 文獻들의 내용에 대한 考證인데, 阿道基羅 조목에서 『三國史記』와 「我道本碑」를 인용한 뒤에 「嘗試論之」라고 한 부분의 비교적 긴 문장의 考證이라든가, 혹은 또 圓光西學 조목에서 『唐高僧傳』의 圓光傳과 『古本殊異傳』의 圓光傳을 인용한 뒤에 (이어 『三國史記』의 貴山傳도 인용을 하긴 하였지만) 나오는 「議曰」이라고 한 부분과 같은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같이 『遺事』의 기록이 史料的인 부분과 考證的인 부분과의 둘로 나누인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즉 『遺事』 기록의 신빙성이란 것은 주로 인용된 기록의 그것에서 문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一然의 의견을 적은 부분은 인용된 文獻에 대한 하나의 견해로서 처리될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 Ⅲ. 採錄된 記錄의 信憑性 문제

비록 모든 인용된 기록들의 전거가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一然의 의견을 서술한 것 이외의 『遺事』의 기록은 모두 어떤 文獻으로부터 인용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遺事』의 이들 기록에 저자인 一然의 자의로운 조작이 작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때로는 문장이 요약 되기도 하고, 혹은 더러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中國이나 우리 나라의 옛날 歷史家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며, 결코 一然만의 결함이 아닌 것이다. 결국 『遺事』가 채록한 기록에는 고의적인 조작이 가해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 점이 우선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입장에서 살펴 본다면, 비록 인용된 文獻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또 비록 현재 인용된 원본이 남아 있지가 않아서 대조하여 그 진위를 검증할 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一然의 조작으로 보려는 견해는 용납할 수가 없게 된다. 예컨대 古朝鮮 조목의 檀君의 建國 기사를 인용한 『魏書』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다거나, 혹은 이를 트집삼아서 『古記』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마치 그 기록을 一然이 佛家の 입장에서 조작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一然이 『遺事』의 기록을 조작하지 않고 옛 文獻에서 이를 인용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인용한 一然 자신이 이를 믿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一然은 阿道基羅 조목에서 『三國史記』로부터 墨胡子和 阿道에 관한 기록을 인용하였지만, 그는 『三國史記』에서와 같이 墨胡子和 阿道가 다른 인물로서 전후하여 新羅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들이 同一人이며, 하나는 別名으로, 하나는 本名으로 나누어 부른 데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증하였다. 즉 異名同人으로 본 것이다. 이같이 때로는 저자인 一然조차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一然은 『遺事』를 편찬하면서 기록을 취하는 기준을 神異에 두고 있다. 이것은 『遺事』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紀異篇이, 그 序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곧 神異를 기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이같이 神異한 일들은, 현재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를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가령 古朝鮮 조목에서 인용한 『古記』의 기록에, 하늘에 있는 桓因의 아들 桓雄이 太伯山의 神壇樹 밑으로 내려왔단가,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여자가 되어 桓雄과 결혼하여 壇君을 낳았단가 한 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太宗春秋公 조목에서, 太宗武烈王이

하루에 쌀 3말과 쥘 9마리를 먹었는데, 百濟를 멸한 뒤에는 점심은 그만두고 朝夕 뿐이었는데도 하루에 쌀 6말과 술 6말, 쥘 10마리를 먹었다는 기록도 문자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조목에서 表訓이 두 번이나 하늘로 올라가서 天帝를 만나 景德王이 아들을 낳도록 간청하였다는 기록도 문자 그대로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明朗神印 조목에서 『金山寺本記』를 인용하여, 明朗이 唐에 갔다 돌아올 때에 海龍의 요청에 의하여 龍宮에 들어가서 秘法을 전하고 黃金 1천량을 받아서 地下를 潛行하여 자기집 우물 밑으로 솟아 나왔다는 기록도 문자 그대로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郁面婢念佛西昇 조목에서 『鄉傳』과 『僧傳』을 인용하여 郁面(勗面)이 산 몸으로 지붕을 뚫고 서쪽으로 날아가 淨土로 往生했다는 기록도 또한 문자 그대로를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같이 一般史話이건 宗教史話이건 간에, 神異한 이야기를 적은 기록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거가 밝혀져 있다고 해서, 혹은 확실한 전거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기록을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만을 고려에 넣는다면, 『遺事』에 채록된 기록들에는 信憑性이 없는 것이 많다고 말할 밖에 없다. 여기서 그저 많다고만 한 것은 神異가 아닌 기록들도 『遺事』에는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들 기록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表訓이 하늘로 오르내렸다는 것은 專制君主 景德王이 꼭 아들을 낳아 그 아들에게 王位를 계승시키려고 한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기록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또 郁面の信心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는 필시 산 몸으로 淨土往生을 한 것으로 믿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往生說話가 中國의 佛敎史話에 있어서, 郁面の 이야기가 그를 본뜬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이들 기록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神話나 說話의 형식을 빌어서 과장해서 나타냈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遺事』는 歷史를 神話나 說話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던 단계의 기록들을 그대로 보전해 준 것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遺事』의 기록들은 神話學이나 宗敎學 혹은 民俗學·人類學 같은 인접과학의 도움을 빌린다면, 그 과장된 표현들 속에 살아 있는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일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만을 놓고 말한다면, 이들 『遺事』의 기록들은 信憑性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그 표현이 심히 엄격해야 한다. 즉 결코 기록에 나타난 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구별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